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 백암산 백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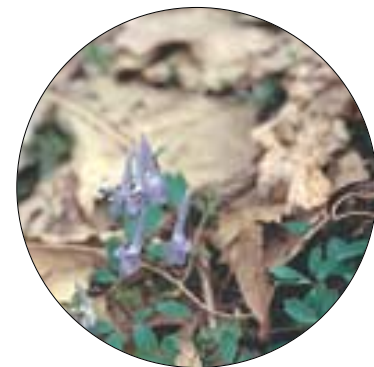
글·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비자나무 숲길.



◇백학봉과 연화실.



◇현호색



◇산자고



◇흰개미를 막기위해 주춧돌과 기둥사이에 놓은 소금.

두계곡 만난 곳에 핀 ‘한떨기 연꽃’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나들목을 지나 곰재(175미터)에 오르면 노령의 면 산줄기와 장성호의 물빛이 푸르다.

들머리 약수마을은 백양사와 같은 동네다. 동(洞)이란, 물[水]을 함께[同] 먹고 사는 곳이다. 실제로 백양사 스님들과 약수마을 사람들은 백암산 골짜기를 함께 마시고 사는 동민(洞民)들이다. 사하촌은 이제 단순한 지리적 관계가 아니라 목숨줄이 서로 이어져 있는 생명공동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주차장 옆 개울에는 청거북, 황소개구리, 비단잉어 등이 살고 있다. 산철쭉 물처럼 백양사 골짜기에 문체의 이런 외래종들이 들어와 설치된 것은 곳곳에 보를 막아 개울을 연못화했기 때문이다. 산 높고 골 깊은 곳일수록 자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생명환경의 원칙이다.

인쪽 주차장에 이르면 노량산 줄기에 솟아오른 백암산의 한 자락이 내려와 있다. 그 자락에 깎아지른 백학봉이 웅장하다. 백학봉을 가운데 두고 왼쪽 계곡은 약수암-금강암-운문암이 자리하고, 오른쪽 계곡은 묘연암-천진암이 있다. 백양사는 그 쌍계곡이 만나는 자리에 핀 한떨기 연꽃이다.

일광정 주변에 아릅드리 갈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전국에 이렇게 크고 우람한 갈참나무 군락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높이는 무려 20미터를 웃돌고, 지름도 1미터에 이른다. 대해수(大解樹)라는 갈참나무의 별명을 비로소 실감케 해준다. 이 갈참나무들이 지금까지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백양사 덕분이다. 이 골짜기에 백양사가 없었더라면, 숲을 말리는 스님들이 없었더라면 벌써 화복(火灼)으로 베어져 사라졌을 것이다.

늙은 참나무들을 보면 조선 5백년 역사의 역사가 눈앞을 가린다. 도토리과 상수리는 첫손에 꼽히던 구황식물이었고, 조정에서는 흉년을 대비해 해마다 전국의 승려들에게 도토리를 주워 관아에 바치도록 했다. 백양사 갈참나무도 그런 슬픈 역사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오른쪽 산자락에는 연자주색 물감을 쓴 듯이 현호색이 화려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 현호색은 전국의 산과 들녘에 피는

진안 화단에도 만발해 있는데, 모두 외래종 원예종이다.

백양사 우회루 옆에 늙은 앵두나무 한 그루가 있다. 앵두는 한자로 '앵도(櫻桃)'라고 한다. 종묘에 제사 시름(時物)로 올라간 것을 보면 품질이 꽤나 높은 앵매다. 백양사 앵두는 수령이 3백년이나 된다. 아마 우리나라 최고령 앵두나무일 것이다.

얼마 전에 연못가에 습방 하나를 새로 지었다. 습기를 가까이에 둔 목조건물은 흰개

국내 최대 갈참나무 군락 장엄

절 뒤 야생차·비자나무 심어 산불 막아

주춧돌-기둥사이 소금 뿌려 흰개미 방어

여러해살이 꽃이다. 그늘이나 습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꽃이 작고 연약해서 거들떠보는 사람 적지만, 유전자 아이들처럼 불수록 귀엽다.

백양사는 백제 무왕 때 여환선사가 개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 이름을 따서 처음에는 백암사(白巖寺)라고 했는데, 그 흔적이 지금 천진암의 '백암선원'으로 남아있다. 백양사로 이름이 바뀐 것은 조선 선조 때의 일이다. 환양선사의 회상에 흰 양이 찾아와 범문을 듣고 간 후 백양사로 고쳐드리는 전설이 있다.

범종루 앞에 찰피나무(엽주나무) 한 그루가 정원수처럼 서 있다. 연화실 열린 문 안에 노란 수선화가 만발해 있다. 이 꽃은 천

미가 쉽게 달려든다. 이를 막기 위해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소금을 놓았는데, 녹은 소금이 기둥에 닿게 스며들었다. 이 또한 옛사람들의 생태적 지혜가 아니겠는가.

극락보전 뒤 산자락에는 야생차-비자나무-참나무 등이 가로피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 굳이 야생차와 비자나무를 심은 까닭은 절집의 불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산불이 났을 때도 불이 경내로 번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 말하자면 방화(防火) 울타리로 조성한 숲이다.

백양사 주변의 봄꽃으로는 평의바람꽃, 만주바람꽃, 율판나물, 개불알꽃, 산자고, 구슬봉이, 머위꽃 등이 눈에 띈다. 천연기념물 제153호인 백양사 비자숲은

고려 고종 때 각진국사가 처음 심었다고 한다. 각진은 보조지눌의 후계로, 불갑사의 천연기념물 참나무와 상사화도 그의 손길에서 싹 틔웠다. 우리나라 비자숲은 절반 이상이 사찰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데, 모두가 옛 수행자들이 마음 뉘듯이 심고 가꾼 것들이다.

우리나라 비자숲의 절반 정도는 이곳 백양사를 비롯하여 고창 선운사, 화순 개천사, 나주 불회사, 고흥 금갑사 등등 사찰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스님들이 사부대중과 사하촌 사람들에게 구충제로 비자를 나눠주기 위해 심은 것들이 나중에 자연적으로 퍼져서 군락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암 골짜기 들머리에 청량원이 자리하고 있다. 청량원은 지고(至高)했던 역사와는 달리 어딘가 불안하고 부조화된 느낌을 준다. 문 앞의 전나무 두 그루는 모두 목이 잘려나가 안쓰럽고, 멧대거리 없는 시멘트 다리는 불수록 흉물스럽다.

청량원을 개울 건너에 두고 등산로를 오르면 국기단(國祈壇)을 만난다. 먼 옛날 천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영조실록>에 돌탑을 막기 위해 바위에 '國祭臺'를 세기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담장 옆의 키 큰 은행나무도 아마 그때 심은 듯하다.

서어나무는 극상림의 대표나무다. 보물 제662호인 대둔산 화암사의 우회루를 개축할 때 나온 불구(佛具)들이 서어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동안 사람의 크고 작은 불구나 도구들을 이 나무로 만들었던 것이 분명하다.

영천골 절벽에 붙어사는 부처존도 백척간두의 삶이긴 마찬가지다. 다른 식물들과 경쟁을 싫어해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 부처존의 생태는 토굴에 숨어사는 외톨박이 낯자와 같다.

■ 교통 :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장성읍에 내리면 백양사행 근대버스가 30분마다 다닌다. 승용차로는 백양사 나들목으로 들어오면 10여분 거리다.

■ 사찰생태연구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templeeco>

아! 큰스님 북한 민수대창작사 작 '근세 고승진영 전시전'

▶ 개막식

불기 2547(서기2003년). 4. 22(화) 오후2시
법연사 불일미술관(서울 사간동)

▶ 관람안내

- 전시기간 : 4월 22일(화) ~ 4월 28일(월)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장료 : 무료
- ※ 전시기간중 무휴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 후원 :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일보



법연사 불일미술관 교통안내 (02-733-5322)
지하철 남대문역에서 하차 1번출구(동편)로 방향
다보에서 경복궁 방향으로 직진(경복궁 문은 앞편편서)

현대불교신문사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www.buddhanews.com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20세기 정신적 師表”

근세 100년 격동의 20세기를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살다간 한국의 큰스님 20분이 지수로 다시 우리곁에 오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내 최초로 20세기 고승 20분의 진영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의 민수대창작사의 전통 손자수로 한 평탄한 수놓아 창작한 “아! 큰스님-근세고승진영 전시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예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창작성파를 제시하고 불교문화의 새 장을 선보이게 될 이번 전시회는 관람 그 자체만으로도 신심과 환희심을 내게해 포교에도 골목같은 만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행의 궤적이 담긴 큰스님들의 모습이 가는 명주실과 천연염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진자수작품은 미술계에 획기적인 전통자수의 창작성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는 인물로 본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20세기 근세 한국불교의 큰스님들은 집콕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단순한 종교적 의미에 머물지 않는 우리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온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이들 큰스님들의 수행으로 점철된 모습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대 큰스님들의 지혜와 유산을 되새기며 본받고 기리는 것입니다.

한편, 예술에서 지수라는 장르는 워낙 공이 많이 들어 현대사회화 되면 필수록 명맥만을 이어갈 정도로 어렵게 전승되고 있는 분야로서 다만, 북한사회의 특수성으로 유일하게 번창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작품들은 그 자체로 전통 손자수라는 기법적 특성으로 국보급 현대불교미술품으로 평가받아 값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